■■■ 추억의 합격기

[제18회(1976년) 사법시험 수석합격, 제12회(1972년) 행정고시 합격]

낙 서

강 지 원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전공

「경력사항」

- 타고난적성찾기국민실천본부 상임대표
-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
-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 푸르메재단 공동대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 청소년인권보호법률지원단 단장
-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 1976년 제18회 사법고시 수석합격
- 1972년 제12회 행정고시 합격

Ⅰ. 무수한 별들의 감사

지나 놓고 보면 대단치도 않은 합격이라고 생각되지만, 막상 고시계사의 청탁이 있었을 때에 나는 이를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이 기회를 통해 그 간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고시계'에 감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몽매한 어린 소년으로서, 아직도 치기어린 아우성이 둘씩, 셋씩 전개되어갈 무렵, 나는 '고시공부'라는 가장 험상궂고 악취 풍기는 과업을,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추태와 망발을 비교적 그대로 만끽하는 형태로 감수해 내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비쩍 마른 몰골을 하고 다녔으며, 패잔병 같은 털털한 의복차림에다 축 내려 깔린 눈망울에는 항상 누구에겐가 쫓기는 듯한 불안과 초조가 박혀 있었고, 이따금씩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찔끔거리는 우스꽝스런 모습도 보였으며, 그리고는 금시라도 비뚤어질 것만 같은 치기에 오기가 겹쳐 왔었고, 거기에다 심심하면 살림살이 "보따리"

를 쌌고, 쾌쾌한 절간 방에서 침침한 도서실로 전전하였으며, 그 간의 가련했던 참새의 내면을 이해할 길 없는 그 많은 주위의 시선들과 대결했을 때, 그리고는 또 하나의 입학시험을 대하듯 노심초사 뒷바라지를 하시는 모친의 연로하신 얼굴을 어느날 갑자기 훔쳐 보았을 때의 순간적으로 거울에 비치는 나의 꼬락서니와 만용과 그 아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풍토들이 나를 실연 아닌 망연의 이야기로 이끌어 가고 말았다는 그 엄연한 사실이 어느날 한 순간에 온 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수년 간에 걸쳐 공들여 쌓아 놓은 탑이 하루 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심정으로 나는 그만 으앙하고 주저앉아 울음보를 터트렸던 그 쏟아지는 슬픔의 이야기에 이르러서야, 나는 몸부림치면서 이겨낸 고시추태가 이렇게 허망한 것인 줄은 예전에는 진실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러한 기회를 빌어서, 그 간의 악몽같은 시간이었으나마, 나의 가장 돈독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던 M선생에게 나의 저간의 이러한 사건들을 비록 엉거주춤한 자세로나마 성의를 다하여 보고하여야 나의 이 알지 못할 직성이 풀릴 것 같고, 아울러서 근 2년간에 가깝도록 한약 달이기와 보양제 끓이는 일을 보람으로 생각하여 주셨고, 시험기간 중에도 줄곧 창 밖을 지켜주신 모친과, 항상 엄중하신 격려의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신 가친, 그리고 형수님과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Ⅱ. 꽃잎의 이야기

1. 엄마시대, 아빠시대

대학 2학년을 시작할 무렵, 나는 어느날 갑자기 내가 이 땅덩어리에서 꼬박 스무해를 살아 버렸다는 기막힌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문득 지난 날의 수 많은 낙서와 자료들을 긁어 모아 꼬박 100 페이지의 '새까만 책자'를 만들어 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종이 쪽지들을 하룻밤 사이에 몽땅 불살라 버렸는데, 거기에는 나의 지난 20년간의 백골들을 불살라 버리는 심정으로 40여개의 사치스러운 제목들이 난무하고 있었으며, 또한 사치스러운 서문들을 세개씩이나 썼고, 동시에 '다시는 이런 글을 쓰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대학생활을 통해 나는 상(賞)줄이나 따라 다니던 글재주를 꺾어 버렸으며, 유일하게 졸업을 앞두고 대학신문의 '꽃잎의 이야기'가 졸업 수상(隨想)으로 있었을 뿐, 외도가 있었다면 아세아지의 한 편의 논문과 한 편의 시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엄마시대, 아빠시대'와 노래를 부르며 그 거리를 가던 이야기가 아마도 전사(前史)로 다루어진 것 같으며, 나의 사춘기는 악다구니의 수첩에서 어느 오만한 백골의 사연이, '가을의 사랑과 고독'이, '사색을 위한 페이지'가 장만되었던 것 같습니다.

2. 행동의 이야기

어물쩍하게 시작한 대학생활은 커다랗게 '행동'의 세계와 '반동'의 세계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두 개의 세계'를 상정하기 좋아하는 나는 성급하게 그 조화를 찾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되도록이면 만끽하는 배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으로 택한 데에는 법대나 상대의 편협성을 강요하는 주위의 집요한 강요를 맨주먹으로 투쟁하여 얻어 낸 산물이었고, 그것이 실망을 가져다 주었는지, 혹시는 새로운 의욕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아직껏 확실하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는 그 학문적 소양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단의 행동의 세계에 투입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이 나라의 문제에 정향(定向)되어 있는 자신을 의식하고 저으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행동의 대열은 우선은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쫓기는 몸이 되었으며, 그래서 곧잘 야간열차를 타는 버릇이 생겼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몸도 되었으며, 그것은 또 하나의 길고 긴 생각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리와 아우성을 제외해 놓고는 으레껏 애숭이 대학생들이 만끽하는, 예를 들면 '봄 · 정치 · 미팅'이라든가, 각종 서클이나 그룹, U나, K나 C 따위에서의 약간의 감투와 활약상, 혹은 학생회 관계나 이를 위한 선거의 행동, 거기에 약간의 글 쓰는 재주 따위들이 그것들이겠는데, 이 때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 같이 '고등학교적 발상법'이라고 생각해 버렸고, 시쳇말로 자칭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동료들을 역시 시쳇말로 고등학교적이라고 우습게 생각해 버렸으며, 나 자신이 관계했던 그것들도 하나같이 성의를 가지고 해 본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어린 아이들의 소영웅심리에 끼인다는 생각으로 나는 오로지 '이 나라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생각하면 이것마저도 내가 그토록 기피했던 소영웅심리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면 순간 아찔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구질구질한 신변 이력보다는, 오히려 '서울을 불사르고 기차에 오르는' 이야기든가, 혹은 '어디로 갈까? 두 개의 세계' 혹은 '성(城), 성의 의미'와 "병상에서"가 더욱 마음에 들고, 여기에 '설악에서 쓰는 편지'와 '영산 지리능선을 올라타고'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3. 반동의 이야기

행동은 반동을 가져다 주었고, 반동은 또 하나의 집념이었습니다.

야간열차로 서울을 탈출하던 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는 어떤 사람 M선생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식으로 생활한다면, 어떤 사람 M선생에게 훌륭한 한 사람의 남자가 될 수 있을까? 쫓기는 몸이라는 생각은 불현듯 생존을 생각해 냈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시준비는 하나의 새로운 입학시험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어느 중소도시에서 백양사로 은신하는 나의 손에는 아직껏 시험과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헌법과 민법총칙이 들려 있었는데, 이 때에는 물론 책 구경을 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그 이후로는 아예 학교와는 담을 쌓았습니다.

3학년 1학기의 반년 간은 독서보다는 주로 외출 횟수를 점검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고, 이 때에는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소설 읽듯이 읽어 재끼는 반면, 독서하는 분량도 엉망이어서 하루에 한 두 장을 펴놓고 며칠씩을 보낸 적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은 자신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 M선생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선생은 지금부터 8년 전의 어느 따스한 봄날에 우리가 아끼는 어느 조용한 모임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로 '파란 색지'와 다정한 미소로서 서로의 교환을 나누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까워질만한 바로 그 때가 바로 이 때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나에게 '사랑'과 '시험'이라는 두 개의 소중한 명제를 한꺼번에 제시해 주었습니다. 6년째에 접어든 만남은 몇 달 만에 한번을 보아도 즐거웠으며, 그것은 곧 사랑이었으나 다른 한편에는 이따금씩 마음의 폭군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3층의 한쪽 방을 치워서 사용도 했고, 여름에는 중앙도서실에 나들이도 했으며, 처음으로 책가방을 싸서 시골방을 찾아가기도 했으며, 이러한 시간들은 나에게 신체적인 장애를 동시에 수반하여 엄습해 왔습니다.

소위 "고시병"은 신경성에서 위장으로 그리고 전신허약으로 번져 갔으며, 이 때의 나는 시험에 쫓기는 마음과 신체적인 악조건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사랑의 이야기는 마치 미치다가 그만둔 사람같은 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나는 단 몇 개월의 경력을 인지하고, 무모한 응시를 피했으며, 이 때쯤 M선생은 먼저 졸업을 하고 '선생님'의 칭호를 얻었으며, 그것은 엄습해 오는 시간의 질곡으로서 나를 압박해 왔습니다.

봄이 되자 다시 책가방을 쌌고, 몇 달 만에 올라온 나는 으레 마음의 폭군이 되어 있었으며, 정비례하듯이 M선생은 저멀리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은 왔고, 온통 뭉개지는 것 같은 쫓기는 나의 시선은 이제는 더 할 것 없는 마지막 일격으로 격퇴 당했으며, 지난 7년간의 연륜이 간직하고 있는 그 많은 사연들에 대해 나는 아무런 한 마디를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 앉았습니다.

어느 칠흙같은 해변의 모래알을 밟으며, 온 천지에서 쏟아지는 슬픔을 단 한 마디도 표현하지 못하고, 나는 뻣뻣한 채로 별장으로 되돌아서는 M선생을 응시했고, 그 길로 또 다시 절간 방의 제약된 공간 속에 파묻힌 나는 그 얼마나 많은 밤들을 M선생의 영상에 몸부림쳤던가? 꺼지는 듯한 영혼의 마지막 한 오라기를 쥐어 잡고 나는 그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썼다가는 찢고 썼다가는 찢었었던가?

증오는 속죄의 마음으로 정리되었으며, 나는 또한 그 얼마나 많은 속죄의 밤을 눈물로서 지새웠던가?

10월 무렵 서울에 올라와 도서실 생활을 두 달 가량을 했고, 12월 중순 무렵 다시 시골방 하나를 얻어서 독서에 피치를 올렸는데, 이 때가 고시준비 중에 가장 피크에 달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어 시험시즌을 맞았고, 나는 11회 3급시험에 원서를 냈습니다.

4. 정리와 도약을 위하여

11회 3급시험의 1차시험은 헌법과 민법총칙의 법조문을 1독하는 정도로 치루었고, 2차시험은 으레 학교시험을 보는 기분으로 치루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두루마리 문제였으나 하등의 새로운 감은 없었고, 오히려 문리대에서 있은 졸업식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앞섰습니다.

실력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마음가짐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꼭 합격하리라고 구태여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으레 여유만만하게 대하는 수험태도는 어느덧 합격발표를 받아냈으며, 그 순간 나는 국가시험을 시쳇말로 우습게 생각해 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3차시험에서 2등으로 낙방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여유있게 받아 들였고, 한 두달 쉬었다가 제12회 3급시험을 위해 전번 시험에서의 점수 여하에 불문하고 일체의 치밀한 정독, 완전 1회독을 끝내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2등으로 떨어졌으니 내심으론 1등을 하리라고 마음 먹었으나, 당락을 알아준다는 친구로부터 다섯 차례의 연락끝에 아직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잔뜩 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현관에 들어섰을 때에야 비참하게도 일곱째로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나의 대학 4년은 말하자면 '제2의 사춘기'였습니다. 그 행동과 반동의 사춘기는 이제는 몇 가지 정리해야 할 작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한 알의 진실을 위한 시론(試論)'을 써야 할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정신과 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앞에는 항상 새로운 도약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Ⅲ. 3급시험 이야기

이상에 있어서 독자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한 개인의 정신사적 궤변을 뇌까려 놓았는데, 이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다시 한번 3급시험을 시작한다면' 하는 가정을 설정하고, 몇 가지 지극히 주관적인 낙서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1. 우선은 살벌한 마음가짐과, 그리고는 항상 동태적인 활동성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벌하게 독한 마음 가짐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침체성과, 자지러지는 듯한 기피증상을 축출하는 동태적인 활동성이 일정한 기간을 소요하는 준비과정을 무난하게 지속시켜 주는 정신적인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2. 철두철미한 단권주의

교과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단권주의를 택했습니다. 과목마다 특수성이 없을 수 없으나, 여러 권의 책을 참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능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 시간이 있으면 주어진 기본서를 한 번 더 정독하겠습니다. 기본서 단권을 위주로 하고, 빠진 문제나 비교하는 등등의 정리가 필요한 문제는 일일이 기본서에 삽입하는 태도를 취했고, 그것이 나의 성격에는 맞았으며, 따라서 일체의 서브노우트는 나에게 귀찮은 과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3. 독서에 대하여

독서방법에 있어서 정독의 필요성은 시험장에서 유사시에 발휘되는 가장 유일한 무기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최초에는 통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으나, 나의 경우에는 실행하지 못했고, 다만 치밀한 정독이 끝난 후에는 나의 경우, 한 손에 책을 들고 달달 외워버리는 주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답안지를 메꾸는 일은 오로지 암기에서 나오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회독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해할 만큼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그러다가 보면 회독 수가 어느 정도 상승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4. 소위 당일치기 이론의 타당성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시험 3개월 전이며, 그것보다는 1개월 전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는 당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당일치기라면 당일에 예상문제를 뽑는다던가, 중요부분을 중점적으로 읽는 태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전체 기본서를 담담하게 한 번 흘낏 보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싶습니다.

5. 답안을 물 흐르듯 내려가는 문장으로

답안작성에는 분명히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경우 '물 흐르듯 유려한 문장'을 휘어 갈기는 태도라고 생각하며, 문장의 길이는 대체로 2 · 3줄 가량으로 정리하고, 각각 한 줄씩 띄어 썼으며, 그 한 문장 한 문장은 대체로 요점에서 요점으로 연결되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나의 경우에 한 문장 한 문장은 대체로 한 항목 한 항목에 준했다고 생각합니다.

Ⅳ.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이제까지의 나와 시험에 대한 낙서는 그 본질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낙서에 불과한 것이며, 그리고 이 낙서는 일단의 정리에 해당하는 시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의 몽매한 어린 소년으로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종장(終章)은 다시 말하면 서장(序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겨울, 봄은 오는가?'라고 울부짖는 그 정신과 땅을 삽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략한 낙서는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좀 더 분홍빛 베일을 쓰고 하나의 삽화로서 둔갑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런 식의 자기 지도적인 발상법으로 인하여 나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시계사에 원고를 넘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의 사춘기가 행동과 반동으로서 가져다 준 그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다시 한 번 '정리와 도약'을 생각하면서 여러 고시 동지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고자 합니다.